

2026-1학기
하노버 대학교 파견

독일 하노버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주도인 하노버(Hannover)는 거대한 박람회 도시이자,
풍부한 녹지와 활기찬 대학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 오늘날의 쾌적하고 널찍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연 친화적 녹색 도시: 거대한 도심 숲(아일렌리데), 산책하기 좋은 인공 호수(마쉬제),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헤렌하우젠 정원이 어우러진 쾌적한 곳입니다.

활기찬 대학과 축구 문화: 라이프니츠 하노버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기가 넘치며, 주말이면 하노버 96 프로 축구팀의 경기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합니다.

북독일 교통의 최적 거점: 주요 고속열차망이 교차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주변의 매력적인 근교 소도시들로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붉은 실(Roter Faden) 투어: 시내 길바닥에 칠해진 약 4.2km의 붉은 선만 따라가면 신시청사 등 주요 명소 36곳을 길 잃지 않고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노버 라이프니츠 대학교



1. 대학의 상징, 벨펜 성(Welfenschloss)

캠퍼스 중앙에 자리 잡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성이 바로 대학교 본관입니다. 원래는 하노버 왕실을 위해 지어지던 궁전이었으나, 1866년 프로이센에 합병되면서 완공 후 대학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성 앞에는 넓은 잔디밭(벨펜가르텐)이 펼쳐져 있어 학생들의 휴식처이자 하노버 시민들의 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 독일 9대 명문 공대 연합 'TU9' 소속

1831년에 '고등 직업학교'로 출발한 이 대학은 독일 내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 연합인 TU9(독일 9개 공과대학교 연합)의 일원입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NLP)**, **기계공학** 등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자랑하며 산학협력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3. 천재 수학자 '라이프니츠'의 이름

대학의 공식 명칭은 미적분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가 하노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2006년 대학 설립 175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대학명에 공식적으로 헌정했습니다.

4.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와 인프라

헤렌하우젠 정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도심과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니더작센주 최대 규모의 대학인 만큼 학생 식당(Mensa)의 규모와 질이 훌륭하며, 훌륭한 도서관 시설(TIB)과 체계화된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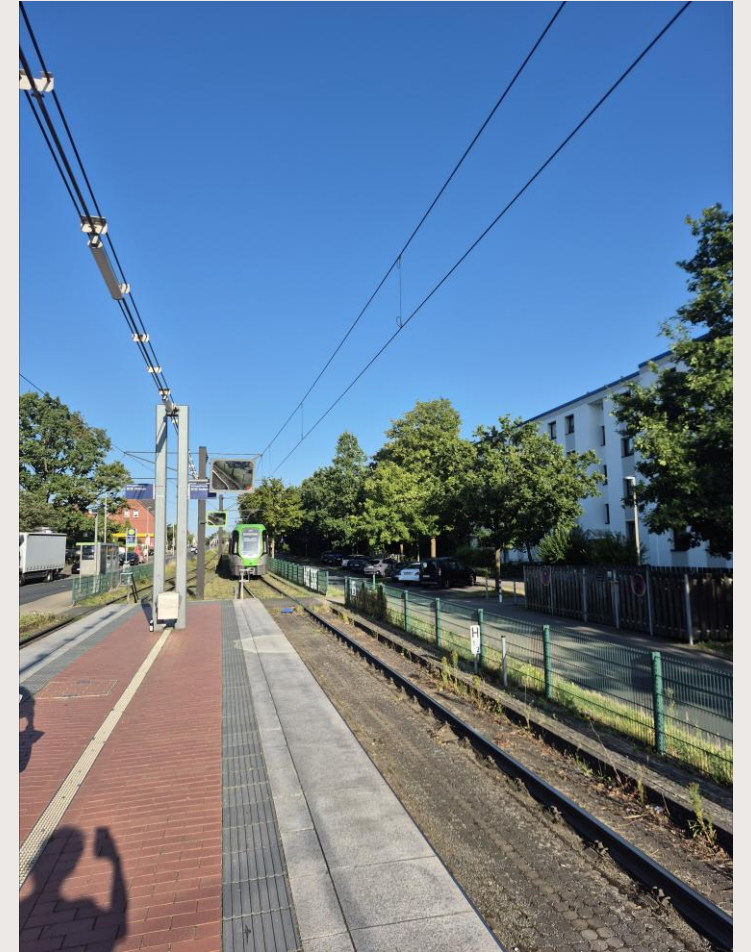


독일 비자는 소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 사이트에 자세한 신청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적극 활용 추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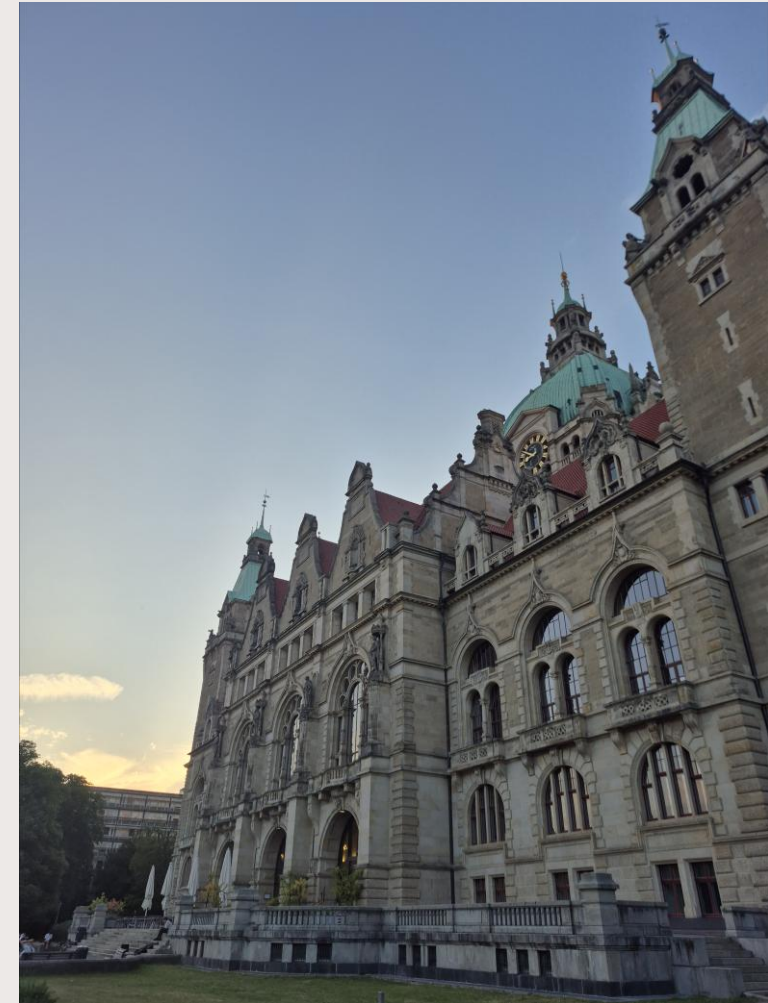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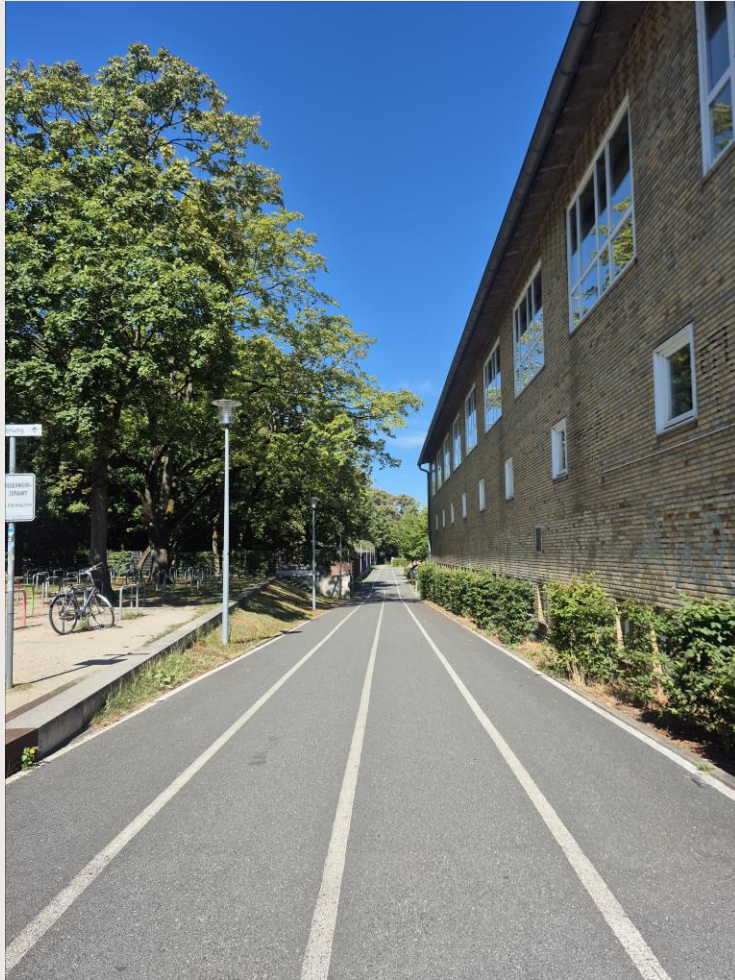
기숙사나 Semester fee 등은 하노버 대학교의 국제처 직원 분과 이메일로 소통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노버 도시 경관



하노버 도시 경관



Hannover



하노버는 뛰어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해서 1학기 동안 하노버 내에 돌아다니지 못한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여러가지 축제가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지역 주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노버팀 혹은 독일의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날이면 하노버 내의 비어가든은 축구 팬들로 가득 찹니다.

하노버 대학교의 큰 규모 덕분에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친구를 사귀기도 좋습니다.

암스테르담과 코펜하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도 여행하기가 쉽고 함부르크, 베를린, 브레멘 등 독일 대표 도시들도 방문하기 좋습니다.

독일 공과대학 연합의 주요 멤버인만큼 학교에서도 일어갈 것이 많고 언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물론 배움도 얻을 수 있고, 환상적인 하늘을 가진 날씨를 만끽하고 싶다면 하노버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